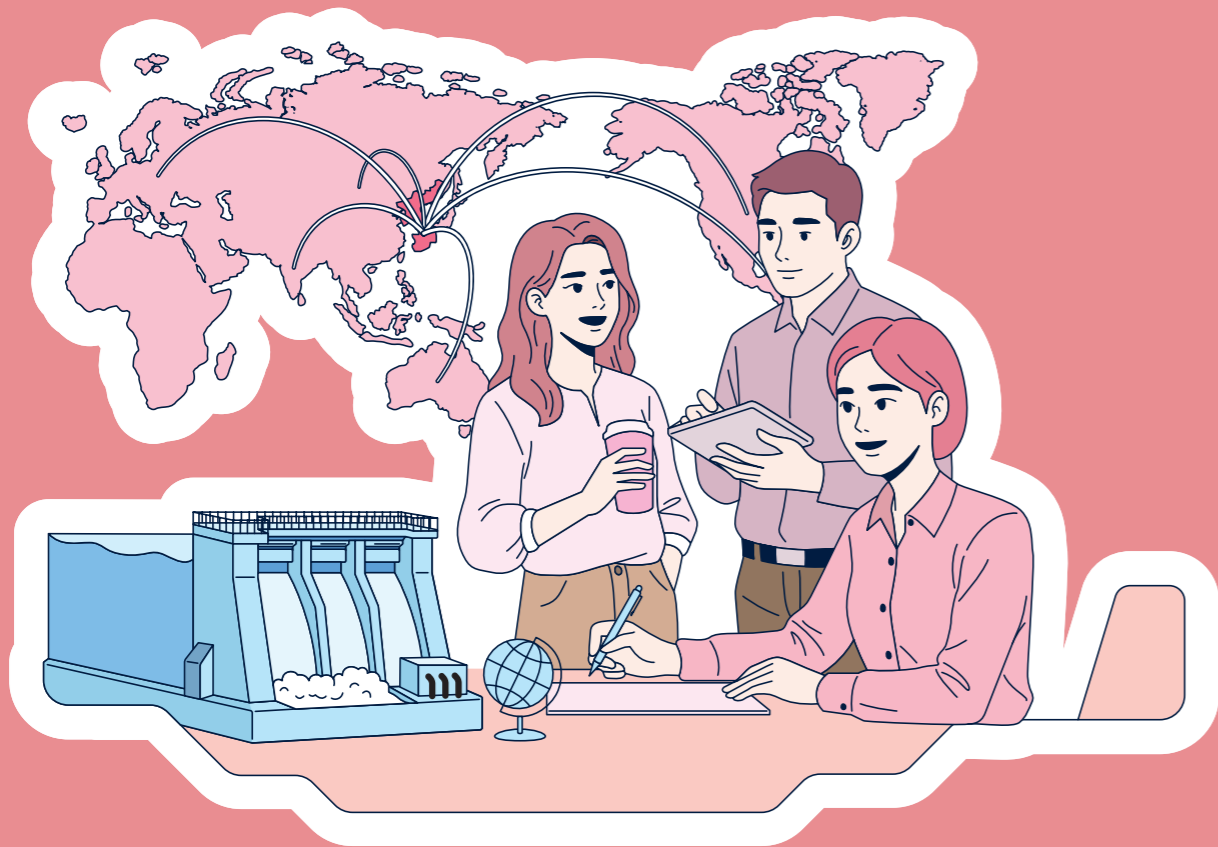


PART 3

2026년 상반기 대담회 주요활동



1. ICOLD 2026 과달라하라 연차회의 국제협력 성과와 2027 대전 연차회의를 향한 시사점 박동순 사무국장 (한국대담회)	98
2. ICOLD 2026 멕시코 과달라하라 연차회의, 댐 기술 동향 임정열 소장 조성배 책임연구원 강경남 선임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물인프라안전연구소) 장수형 소장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연구소)	114
3. ICOLD 2026 멕시코 연차회의 참관기 및 2027 대전 연차회의를 위한 벤치마킹 전략 김명현 과장 (한국수자원공사)	132
4. 회의개최	142

ICOLD 2026 과달라하라 연차회의의 국제협력 성과와 2027 대전 연차회의를 향한 시사점

International Cooperation Outcomes at ICOLD 2026 Guadalajara and Strategic Implications for ICOLD 2027 Daejeon



박동순 한국대담회 사무국장
fulgent@kwater.or.kr

요약 (Abstract)

2026년 5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된 ICOLD 연차회의 기간 동안 한국대담회(KNCOLD)가 수행한 국제협력 미팅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ICOLD 2027 대전 연차회의의 성공적 기획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COLD 사무국 및 2026 조직위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행사 운영의 재무적, 기술적 뼈대를 확립하였으며, USSD (미국), CDA (캐나다), JCOLD (일본), CHINCOLD (중국), ANCOLD (호주), EURCOLD (유럽) 등 주요국 대담회와의 양자 회의를 통해 실효적인 동반자적 교류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번 국제협력 성과가 단순한 행사 유치와 홍보를 넘어, 기술 세션 공동 기획, 글로벌 스폰서십 유치, 그리고 스마트 댐 안전관리 등 차세대 댐 기술 의제를 선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한국대담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건설적인 제언을 제시한다.

키워드: ICOLD 2027, 국제협력, 댐 안전, 스마트 댐, 한국대담회

Keywords: ICOLD 2027, International Cooperation, Dam Safety, Smart Dam, KNCOLD

1. 들어가며

2026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된 국제대담회(ICOLD) 제 93차 연차회의는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향후 1년 뒤 한국 대전에서 개최될 ICOLD 2027 연차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자리였다. 한국대담회(KNCOLD)는 이번 과달라하라 행사 기간 중 ICOLD 사무국을 비롯하여 미국대담회(USSD), 일본대담회(JCOLD), 중국대담회(CHINCOLD), 유럽대담회(EURCOLD), 호주대담회(ANCOLD), 캐나다대담회(CDA), 그리고 ICOLD 2026 조직위원회까지 총 8개 주요 기관과의 국제협력 미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의례적 회동이 아닌, 각 회원국 대담회와의 동반자적 교류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ICOLD 2027 Daejeon의 위상 제고와 한국대담회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향한 전략적 외교 활동이었다.

본 기고문은 과달라하라 현지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국제협력 미팅 결과를 기관별로 상세히 조망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ICOLD 2027 Daejeon 기획·운영상의 시사점, 그리고 한국대담회가 향후 보다 활성화된 학술·기술·외교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건설적 제언을 함께 담고자 한다.

2. ICOLD 2026 Guadalajara 국제협력 추진 결과 개관

2.1 추진 개요

이번 국제협력 활동은 ICOLD 2027 Daejeon 연차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ICOLD 본부 및 주요 회원국 대담회와의 양자 미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짧은 시간 안에 8개 기관과 연속적으로 협의 일정을 소화한 점은 한국대담회의 외교적 집중력과 조직 역량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협의의 주요 키워드는 ① ICOLD 2027 Daejeon 공동 홍보 및 등록 활성화, ② Short Course·Technical Session·Workshop 등 기술 콘텐츠 협력, ③ Smart Dam·AI·계측·Aging Dam Upgrade 등 차세대 기술 의제 공동 발굴, ④ Young Professional Forum(YPF) 및 차세대 인재 교류, ⑤ MOU 갱

신 및 신규 체결을 통한 제도적 협력 기반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2.2 협의 기관별 주요 협의 결과 요약

주요 협의 기관과 핵심 협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으며, 이외에도 ICOLD YPF (Young Professional Forum), 성 다양성 위원회, 지속가능성 위원회 등 과도 협력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였다.

[표 1] ICOLD 2026 Guadalajara 국제협력 미팅 협의 결과 요약

협의 대상	협의 일시	주요 협의 결과
ICOLD 사무국	5.23	2027 대전 연차회의 개최 MOU 최종안 서명,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한 포괄적 동반 협력 공감대, ICOLD 공식 채널 홍보 협력
USSD(미국)	5.25	SNS-웹-뉴스레터 공동 홍보, Remote Monitoring·Hands-on Short Course 공동 기획, AI·계측 분야 전문가 협력
JCOLD(일본)	5.26	"Water-Energy Nexus" 공동 세션 운영, 노후댐 성능개선(Aging Dam Upgrade) 기술교류, EADC 운영 협력 강화
CHINCOLD(중국)	5.26	Smart Dam TC(AI·계측) 협력, 중국 수리부 연계 대규모 참여 검토, EADC 후속 협의 지속
EURCOLD(유럽)	5.26	"Dams and Reservoirs Day" 유럽 홍보, '26.9 Bydgoszcz EURCOLD Symposium 홍보 마케팅
ANCOLD(호주)	5.27	ICOLD 2029 호주 개최 협력, ICOLD 2027 중 KNCOLD-ANCOLD MOU 체결, Tailings Dam 드론·3D·AI 안전점검 협력
CDA(캐나다)	5.27	2019 Ottawa 연차회의 운영 노하우 이전, 2027 공동 파빌리온(CDA), '26.10 Halifax 컨퍼런스 홍보, YPF-Quebec 협력
ICOLD 2026 조직위	5.27	Whova 모바일앱 활용 권고, 등록·전시·학술 운영 자문, Call for Papers·Passport Program 권고, 중남미 유치 지원, K-Culture 연계 컨셉 권고

3. ICOLD 사무국과의 협력: MOU 서명과 제도적 기반 다지기

5월 23일, ICOLD 사무국과의 미팅은 이번 출장의 중요한 일정이었다. 한국대담회는 ICOLD 중앙사무국과 ICOLD 2027 Daejeon 개최를 위한 MOU 최종안에 서명하며, 향후 1년간의 공동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정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MOU 부속서의 세부 문구까지 함께 확인하였고, 행사 운영의 책임과 권한, 재정 분담, 학술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ICOLD 측은 Special Parallel Session, Young Professional Forum(YPF) 시

상 부문 확대, 그리고 KNCOLD가 주도하는 특별 세션의 학술적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는 ICOLD 2027 Daejeon이 단순한 연차회의를 넘어, 차세대 댐 기술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무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ICOLD 사무국은 자체 공식 채널(웹사이트, LinkedIn 등)을 통한 ICOLD 2027 홍보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ICOLD 산하 각 TC (Technical Committee)와의 연계 프로그램 기획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이는 행사의 학술적 깊이를 보장하는 동시에, 회원국 간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그림 1] ICOLD 중앙사무국과의 MOU 체결

4. 미국대담회(USSD)와의 협력: 북미 시장과 기술 콘텐츠의 동시 공략

5월 25일 16:00에 진행된 USSD와의 미팅에는 Christina Winckler(USSD 측), Marty Teal (ICOLD 부총재), Dean Durkee (전 ICOLD 부총재), John Wolfhope (ICOLD 2026 총괄기획), Georgette Hlepas (USACE), Angel Gutierrez (USBR) 등 미국 측의 핵심 인사가 참여하였다.

4.1 ICOLD 2027 공동 홍보 협력

USSD는 자체 웹사이트, 뉴스레터, SNS 채널을 활용하여 ICOLD 2027 Daejeon을 미

국 및 북미 댐 커뮤니티에 적극 홍보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미국 측 전문가들이 한국 측 인사들과 함께하는 공동 콘텐츠 제작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4.2 US 전시관 및 Short Course 협력

ICOLD 2027 기간 중 미국 댐 산업계의 전시관 운영 홍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미국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행사의 산업적 규모와 등록자 수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학술 콘텐츠 측면에서는 Remote Monitoring 및 Hands-on 기반 Short Course 공동 기획이 합의되었다. 특히 UC Davis 등 미국 학계와의 연계를 통한 지진, AI, 계측, 원격 모니터링 분야 협력은, ICOLD 2027 학술 프로그램의 차별화 포인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4.3 시사점

USSD와의 협력은 단발성 홍보 차원을 넘어, 공동 기술 콘텐츠 기획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한국대담회는 USSD와의 정기적인 화상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2027년까지의 홍보 마케팅 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USSD(미국대담회)와의 국제협력 미팅

5. 일본대담회(JCOLD)와의 협력: 동아시아 협력의 가교

5월 26일 오전 진행된 JCOLD와의 미팅에는 Tetsuya Sumi (ICOLD 부총재), Tsuyoshi Arimitsu, Ichihara Nobuyuki (JWA), Yutaro Mizuhashi (JCOLD) 등이 참석하였다.

5.1 "Water-Energy Nexus" 공동 세션

KNCOLD는 ICOLD 2027 Daejeon에서 "Water-Energy Nexus"를 주제로 한 공동 세션 운영을 제안하였고, 일본대담회 역시 이에 적극 동의하였다. 기후위기 시대의 댐은 단순한 수자원 인프라가 아니라, 수력발전·양수발전·수상태양광 등 에너지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동아시아 댐 기술 담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는다.

5.2 노후댐 성능개선(Aging Dam Upgrade) 및 EADC 협력

또한 노후댐 성능개선과 관련한 양국 기술 교류를 보다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 동아시아댐기술컨퍼런스(EADC)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EADC는 한·중·일 3국이 운번 개최해 온 지역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APG 국가 확대 등 향후 보다 체계적인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5.3 시사점

JCOLD와의 협력은 ICOLD 2027 Daejeon의 학술 깊이를 보강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주요국이 댐 기술 담론의 중심축 중 하나라는 위상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갖는다. 다만 EADC의 운영 체계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과의 일정 조율 이슈가 남아 있어, 후속 협의가 필요하다.



[그림 3] JCOLD(일본대담회)와의 국제협력 미팅

6. 중국대담회(CHINCOLD)와의 협력: Smart Dam과 EADC

5월 26일 오후 진행된 CHINCOLD와의 미팅에는 Jia Jinsheng (중국대담회 회장), Yang Guang 등 CHINCOLD 핵심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6.1 Smart Dam TC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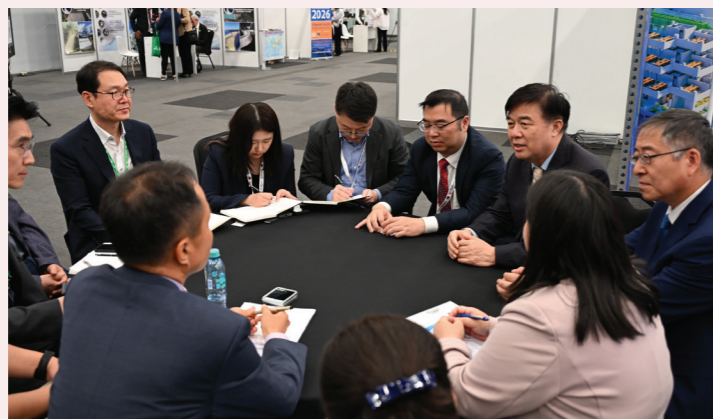
CHINCOLD는 ICOLD 2027에서 Smart Dam Technical Committee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매개로 한 AI-계측·디지털트윈 분야의 공동 워크숍 운영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중국 수리부(Ministry of Water Resources) 및 산하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대규모 기술 발표·전시 참여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었다.

6.2 EADC 후속 일정 협의

당초 예정되었던 EADC의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향후 한·중·일 3국이 EADC의 차기 개최 시점과 주제를 공동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2026년 10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RCC/CMD 관련 행사에서 ICOLD 2027 Daejeon 홍보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6.3 시사점

CHINCOLD는 회원 규모와 산업 규모 모두에서 ICOLD 2027 Daejeon 등록자 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이다. 따라서 향후 1년간 EADC 및 Smart Dam TC 양 채널을 통해 협력의 밀도를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림 4] CHINCOLD(중국대담회)와의 국제협력 미팅

7. 유럽대담회(EURCOLD)와의 협력: 유럽 거점 확보

5월 26일 오후, EURCOLD 회장 Arjan Jovani와의 미팅이 별도로 진행되었다.

7.1 EURCOLD의 규모와 전략적 의미

EURCOLD는 약 8,000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유럽 댐 기술 공동체의 거대 협의체로, 유럽 25개국 NC(National Committee)를 사실상 대표하는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EURCOLD와의 협력은 ICOLD 2027 Daejeon의 유럽 등록자 확보에 핵심적이다.

7.2 Dams and Reservoirs Day 및 EURCOLD Symposium 활용

EURCOLD는 매년 진행하는 "Dams and Reservoirs Day" 행사를 ICOLD 2027 Daejeon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또한 2026년 9월 폴란드 Bydgoszcz에서 열리는 13th ICOLD European Club Symposium에서 ICOLD 2027 공식 홍보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하였다.

7.3 시사점

EURCOLD와의 협력은 단일 NC 단위의 홍보보다 훨씬 효율적인 일괄 접근(One-stop)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대담회는 2026년 9월 EURCOLD 행사 시 내년도 행사의 흥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8. 호주대담회(ANCOLD)와의 협력

5월 27일 진행된 ANCOLD와의 미팅에는 Colleen Baker (ANCOLD 회장), Angus Swindon (전 ANCOLD 회장), Sam Banzi (ANCOLD Deputy Chair) 등이 참석하였다.

8.1 ICOLD 2029 호주 개최와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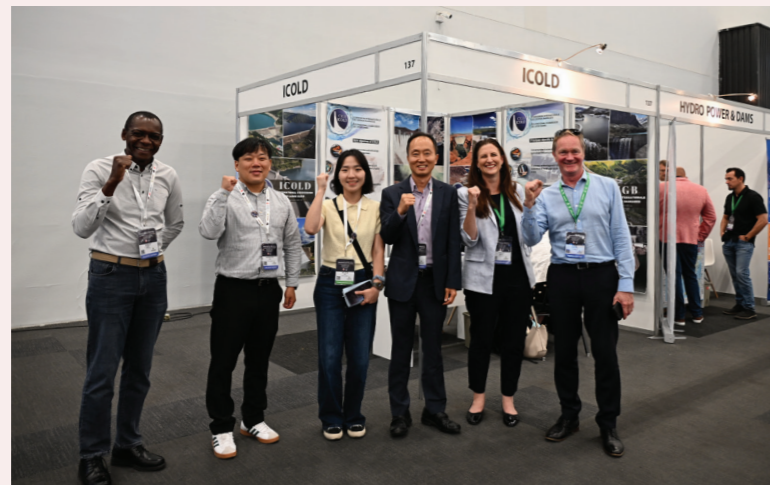
ANCOLD는 ICOLD 2029 호주 연차회의의 개최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 모델을 자국 행사 준비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ICOLD 2027 기간 중 KNCOLD-ANCOLD MOU를 체결하는 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였다.

8.2 테일링댐 드론 안전점검 협력

ANCOLD와 KNCOLD는 광산 개발에 따른 테일링댐(Tailings Dam)에 대한 드론·3D·AI 기반 안전점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적극 희망하였다. 또한 한-호 AKF (Australia-Korea Foundation) 기술교류 프로그램과의 연계, Univ. of Melbourne의 Rory Nathan 교수 등 학계 인사 초청 등 구체적 협력 아이템도 함께 논의하였다.

8.3 시사점

ANCOLD와의 협력은 차차기 개최국과의 연속적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대담회는 향후 ICOLD 2029 호주 행사의 준비 단계에서도 자문 파트너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 댐 커뮤니티 내에서의 위상과 발언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ANCOLD(호주대담회)와의 국제협력 미팅

9. 캐나다대담회(CDA)와의 협력: 운영 노하우의 직접 이전

5월 27일 16시에 진행된 CDA와의 미팅에는 Tony Bennett (전 ICOLD 2019 조직위원장, CDA 전 회장), Jarrod Malenchak (현 CDA 부회장), Margaret Trias, Marc Smith (TC 의장), Merry Deng 등이 참석하였다.

9.1 2019 Ottawa 개최 노하우의 전수

CDA는 2019년 ICOLD Ottawa 연차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

고 있다. 이번 미팅에서는 등록·전시·학술 프로그램·재정 운영 등 행사 전반에 걸친 노하우를 KNCOLD와 공유하기로 하였고, 특히 등록 시스템과 전시 부스 운영에 관한 실무적 자료까지 직접 전달받기로 협의하였다.

9.2 2027 캐나다 공동 파빌리온 운영

ICOLD 2027 기간 중 CDA 기업 공동으로 북미 파빌리온 부스를 운영하는 방안이 협의되었다. 이는 캐나다 댐 산업계가 단일 거점을 통해 ICOLD 2027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행사 규모와 산업적 성과를 동시에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9.3 2026.10 CDA Halifax 회의에서의 홍보 및 YPF·Quebec 협력

2026년 10월 캐나다 Halifax에서 개최되는 CDA Annual Conference에서 KNCOLD와의 MOU에 기반하여 한국대담회를 초청하기로 하였고, Young Professional Forum(YPF) 협력과 Quebec 지역 댐 기술 관련 연구소 협력 등 세부 의제도 후속 협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9.4 시사점

CDA는 ICOLD 2027 Daejeon 운영 실무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협력 파트너이다. 특히 등록·재정·전시 운영 노하우는 행사 직전기에 매우 큰 가치를 가지므로,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협의를 통해 노하우 이전이 실제 운영 매뉴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6] CDA(캐나다대담회)와의 국제협력 미팅

10. ICOLD 2026 조직위원회의 자문: 대전 행사 운영의 청사진

5월 27일 17시, ICOLD 2026 조직위원회의 핵심 인사들과의 미팅이 진행되었다. John Wolfhope (ICOLD 2026 조직위 기술 총괄), Martin Teal (ICOLD 2026 조직위 기술 공동 주관), Merry Deng (네트워킹 자원봉사) 등 멕시코 행사를 직접 운영한 인사들이 KNCOLD에 종합 자문을 제공하였다. 특히 ICOLD 2027 대전 연차회의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자원하여 전폭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10.1 운영 시스템

Whova 등 컨퍼런스 운영 모바일 앱 플랫폼의 활용 노하우 및 주의사항, 등록 시스템의 단계별 일정 관리, 학생·YP·일반·VIP 구분 운영, 전시 부스의 동선 설계 및 후원사 유치 전략, 그리고 ICOLD 사무국과의 기술 프로그램 협의 채널 운영 방안 등 행사 운영 전반에 걸친 실무 자문이 이루어졌다.

10.2 Call for Papers 및 Passport Program

발표 논문 모집은 충분한 리드 타임을 두고 지역별·주제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참가자가 다양한 세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Passport Program 등 흥미 유발 장치 도입이 권고되었다.

10.3 중남미 유치 협력 및 K-Culture 연계 운영

ICOLD 2026 멕시코 조직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남미 댐 커뮤니티의 ICOLD 2027 Daejeon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한국 고유의 문화 자산(K-Culture)을 행사 운영과 결합하여 다른 연차회의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컨셉화하는 방안도 권고되었다.



[그림 7] ICOLD 2026 조직위 및 2027 글로벌 서포터즈 면담

11. 2026년 하반기 ICOLD 2027 홍보용 주요 컨퍼런스

이번 과달라하라 일정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후속 마케팅 전략 중 하나는, 2026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주요 국제 댐 컨퍼런스를 ICOLD 2027 Daejeon 홍보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대담회는 다음 Table 2의 5개 행사를 우선순위 홍보 채널로 설정하였다.

[표 2] 2026년 하반기 ICOLD 2027 Daejeon 홍보 거점 행사

구분	행사명	일자	장소	연계 효과
①	Hydro Hybridization 2026	2026.6.30~7.1	포르투갈 Porto	수상태양광·양수·신재생 하이브리드 기술
②	13th ICOLD European Club Symposium	2026.9.21~9.25	폴란드 Bydgoszcz	유럽 25개국 NC 일괄 접촉
③	Hydro 2026	2026.10.14~10.16	이탈리아 Bologna	글로벌 산업계 1,200~1,500명, 후원사 유치
④	CDA Annual Conference	2026.10.25~10.28	캐나다 Halifax	북미 직접 홍보, MOU 기반 등 록비 면제
⑤	2026 ANCOLD Conference	2026.10.26~10.28	호주 Hobart	Tailings-Dam Safety TC 협력

이들 행사는 각각 유럽(EURCOLD Symposium) → 글로벌 산업계(Hydro 2026) → 북미(CDA) → 호주·태평양(ANCOLD)로 이어지는 권역별 홍보 전략의 거점이 되며, 한국대담회는 행사별 맞춤형 홍보 자료와 콘텐츠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12. ICOLD 2027 Daejeon 기획·운영을 위한 시사점

이상의 국제협력 결과를 토대로, ICOLD 2027 Daejeon 연차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2.1 기술 콘텐츠의 차별화: 한국이 주도하는 의제 설계

USSD (Remote Monitoring·AI), JCOLD (Aging Dam Upgrade), CHINCOLD (Smart Dam), ANCOLD (드론·3D·AI 기반 Tailings Dam Safety) 등 각국 대담회가 제시한 협력 의제는 공통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두 축으로 수렴된다. 한국대담회는 이를 종합하여 ICOLD 2027의 기술 세션들의 운영을 미래지향적인 컨셉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12.2 권역별 홍보 전략: 5대 거점 행사의 체계적 활용

Table 2에서 제시한 5개 행사를 ICOLD 2027 대전 연차회의의 흥행을 위한 등록자 확보, 전시 기업 확보, 글로벌 스폰서십 모집 등을 위한 적극적 교두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사별 홍보 마케팅 성과를 정량 지표(접촉 인사 수, 등록 의향서 수, 부스 참여 의향서 수 등)로 관리하여, 2027년 4월 최종 등록 마감 전까지 흥행을 위한 수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12.3 운영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 CDA·ICOLD 2026 조직위 노하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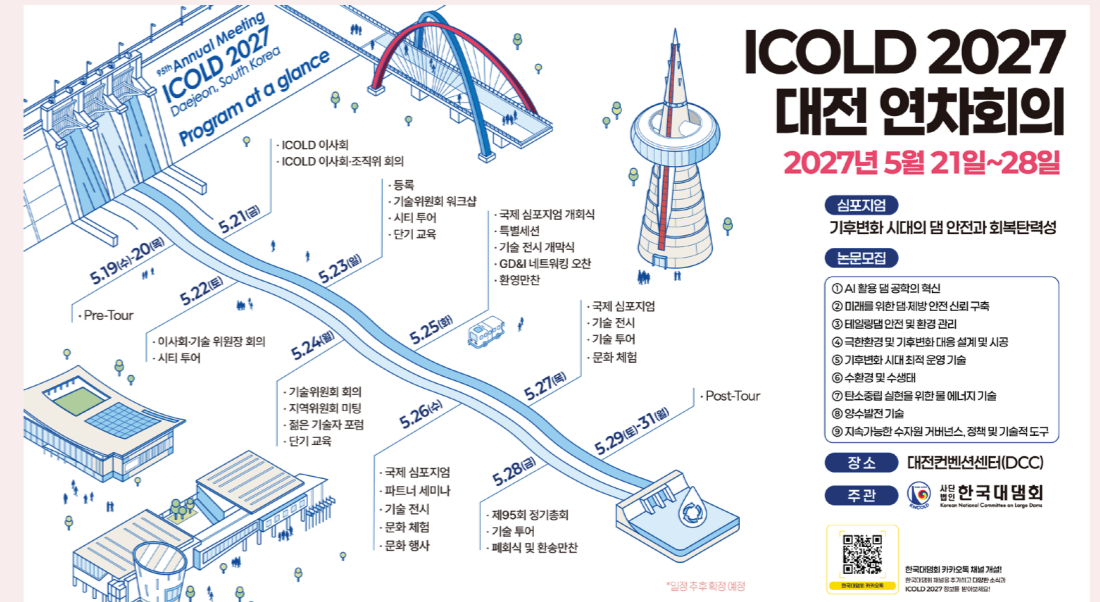
등록·전시·학술·재정·IT 플랫폼(Whova 등) 등 행사 운영 전반에 걸쳐, 2019 Ottawa(CDA)와 2026 Guadalajara(멕시코 조직위)의 노하우를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등록 시스템과 학술 논문 관리 플랫폼은 2026년 하반기 시작과 함께 개발과 초기 서비스를 시작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또한 글로벌 서포터즈 또는 글로벌 행사 기획 자문단 운영을 통해 자발적인 의지로 내년도 행사의 흥행을 도모하기 원하는 전문가 그룹을 모집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12.4 청년 세대(YP)의 적극적 참여 설계

ICOLD 사무국, USSD, CDA, ANCOLD 등 다수 기관이 Young Professional Forum(YPF) 협력을 공통 의제로 제시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 ICOLD 2027 Daejeon은 단순히 YPF 세션을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YPF 수상, YPF Mentor-Mentee 프로그램, YPF 전용 네트워킹 공간 등 차세대 인재가 행사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12.5 K-Culture를 활용한 차별화된 행사 경험

ICOLD 2026 조직위가 제안한 K-Culture 연계 운영은 한국 행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차별화 자산이다. 단순한 관광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수리 토목, K-Pop, K-Drama, K-Food 등을 학술 일정과 자연스럽게 결합한 "K-Engineering meets K-Culture" 콘셉트를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그림 8] ICOLD 2027 대전 연차회의 프로그램(안)

13. 한국대담회 활성화를 위한 건설적 제언

ICOLD 2027 Daejeon은 한국대담회 자체의 체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도 활용되어야 한다. 이번 과달라하라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대담회 활성화를 위한 다섯 가지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3.1 상시 국제협력 채널의 구축

이번에 협의된 8개 기관과의 협력은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협력 거버넌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대담회 내부 상설 국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화상 회의·협력 실행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13.2 회원 참여 기반의 학술 활동 강화

한국대담회는 반기 정기 간행물인 대담회지를 비롯해 다양한 학술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제협력에서 도출된 의제(AI-계측·노후담·하이브리드·테일링담 등)를 한국대담회 회원들이 직접 다루는 국내 워크숍·기술 세미나로 정례화하여, ICOLD 2027 발표를 위한 회원 발표 풀(Pool)을 사전에 양성할 필요가 있다.

13.3 산업계 참여 확대와 후원 모델의 다각화

ICOLD 2027 행사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은 산업계의 후원과 참여에 크게 좌우된다. 한국대담회는 댐, 수력, 양수발전, 점검진단, 계측, 드론, 로봇, AI 등 연관 산업계 기업의 후원 등급 모델을 보다 세분화하고, 조직위원회를 확대 편성하여 의견 수렴 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13.4 차세대 회원 확보를 위한 YP 프로그램 강화

ICOLD 2027의 YPF 운영 경험을 한국대담회의 항구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행사 추진 중에도 KNCOLD Young Professional Program을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학·연구원·기업의 청년 전문가들에게 멘토링, 해외 학회 참가 지원, 논문 발표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10년 한국대담회를 이끌 차세대 리더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13.5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회원 서비스 고도화

이번 ICOLD 2026 조직위와의 협의에서 확인된 Whova 등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는, ICOLD 2027만의 일회성 도구가 아니라 한국대담회 회원 서비스에 상시 적용 가능한 자산이다. 한국대담회 자체 회원 포털, 학술 콘텐츠 아카이브, 국제협력 자료 라이브러리 등을 종합한 KNCOLD Digital Hub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4. 맺음말

ICOLD 2026 Guadalajara에서의 국제협력 활동은 한국대담회의 외교적 역량과 조직적 실행력을 국제 무대에서 입증한 자리였다. 짧은 회기 중 8개 핵심 기관과의 양자 미팅을 성사시키고, 각각의 협력 의제를 구체적 후속 계획으로 연결한 점은 향후 1년간의 ICOLD 2027 Daejeon 준비에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본 기고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협력의 성과는 MOU·홍보·학술 세션·전시·YPF·K-Culture·디지털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행사 운영의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각국 대담회와의 동반자적 교류협력 관계를 지

속가능하게 성장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ICOLD 2027 Daejeon이 단순히 한 번의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대담회가 글로벌 댐 커뮤니티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한국의 댐 기술이 차세대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한국대담회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고를 마칩니다.

감사의 글

본 기고문 작성에 있어 ICOLD 2026 Guadalajara 현지에서의 협상에 적극 협력해 주신 ICOLD 사무국, USSD, JCOLD, CHINCOLD, EURCOLD, ANCOLD, CDA 관계자분들과 ICOLD 2026 조직위 John Wolfhope, Martin Teal, Merry Deng 등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